

# 내년 최저임금 9620원...노사 모두 반발

### 5% 올라 월 환산 201만580원 경경제 “고물가에 인건비 가중” 노동계 “실질적 임금 하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 경제단체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계는 고물가로 인한 부담 속에 최저임금이 적잖이 올라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5년이 지나서도 이뤄지지 못한 데다, 앞으로 물가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을 불러올 수 있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광주상의 설명이다.

광주상의는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5.0%의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돼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 기간 어려워도 탄력 근무를 이용해 최대한 인력 감축 없이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며 “소득 격차를 더욱 벌여지게 하는 이러한 결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어섰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며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논의에서부터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달 2일 진행되는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저항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노동자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B씨는 “최저시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앞으로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 뻔하다”며 “현 시점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없다. 내년에 물가가 더 오를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에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호남권 등에 2024년까지 구축

한국전력은 올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과 제주, 전북 3개 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국 15개 지역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ADMS 구축이 완료되면 배전망 재생에너지 연계 용량을 2341MW(메가와트) 추가로 확보하고 배전망 건설도 줄일 수 있어 3092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비 효율화로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5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DMS는 전국 각지에 복잡하게 분포된 배전망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배전망 운영 플랫폼이다.

한전 배전계획처는 이 시스템을 지난 2020년 개발한 뒤 지난해 충북본부에 설치해 실제 계통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30일 충북지역본부에서 ‘ADMS 시범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전국 사업소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개발내용과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원자재값 폭등’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뚝’

6월 비제조업 인력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 2013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경기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상승한다.

지난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6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6월 제조업 업황BSI는 74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7월 업황전망BSI도 74로, 전월에 비해 7포인트나 떨어졌다. 전국 평균 제조업 업황BSI는 83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감소했지만 광주·전남보다 9포인트 높았다.

업황 BSI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한 값이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지난 6·22일 발인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전남 5인 이상 제조업체 241개·비제조업체 263개 등 504개가 응답했다.

제조업 매출 BSI와 신규 수주 BSI는 각 12포인트, 생산 BSI는 14포인트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컸다.

채산성 BSI는 65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던 2020년 5월과 같다.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45.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6%), 내수

부진(8.9%) 등을 들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8로 지난달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졌다.

인력사정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내려간 67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인력사정BSI는 인력 과잉이라고 답한 응답업체 구성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을 빼고 10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이 27.0%로, 전월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19.2%)과 불확실한 경제상황(11.1%), 내수 부진(8.7%)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30일 문을 연 ‘고흥 남계지구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주택홍보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

##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대박 예감

### 남계지구에 프리미엄 아파트...주택홍보관 오픈날 ‘구름 인파’

지난 30일 오전 10시 고흥읍 고흥읍 등암리에 문을 연 ‘고흥 남계지구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주택홍보관은 오픈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고흥 남계지구 승원팰리체 하이엔드’는 전용면적 84㎡, 126㎡로 구성, 총 18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혁신 평면구조 프리미엄, 다락 구조 특화 설계 등이 적용됐고, 지역 내 첫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 이날 무더위 속에서도 주택홍보관에 입장하기 위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고, 내부 입장해서도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해당 단지는 고흥 남계지구 핵심 입지에 위치해 고흥군청과 읍사무소, 법원 등 행정시설과 마트, 전통시장 등 이용이 수월하고, 고흥-여수를 잇는 팔영대교와 고흥로, 고흥IC, 고흥공영터미

널 등 광역교통망 이용도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옆 고흥천과 어린이공원, 봉황산 등 자연 여건과 고흥동초, 고흥여중, 고흥중, 고흥고, 고흥산업과학고 등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여기에 4베이(Bay) 혁신설계와 각종 커뮤니티 시설, 세대별 전용창고 제공 등으로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흥 남계지구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주택홍보관은 1일까지 2일간 홍보관에서 방문접수 신청을 할 수 있고, 2일 당첨자 발표와 동호회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고흥 승원팰리체 더퍼스트’에 이어 두 번째 선보이는 현장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J원두막’으로 놀러 오세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1층에 마련된 캐릭터 ‘KJ원두막’에서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울려온 은행을 찾는 누구나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코스피, 외국인·기관 대량 매도 2% 급락

### 코스닥도 외국인·기관 순매도에 2%대 떨어져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332.64(-45.35) |
| ↓ 코스닥        | 745.44(-16.91)  |
| ↓ 금리(국고채 3년) | 3.550(-0.002)   |
| ↓ 환율(USD)    | 1298.40(-0.60)  |

코스피가 30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2% 가까이 떨어지며 2330대로 가라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35포인트(1.91%) 하락한 2332.6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40억원, 3204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2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는 없다”고 발언해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다.

또 미국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유입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이번 지수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91포인트(2.22%) 밀린 745.44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29억원, 83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7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8조7295억원, 6조1833억원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03.7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전 거래일보다 0.6원 내린 129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대응과 준비수준은 낮아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15개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2022년 광주 지역기업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도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해 광주지역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인지도(76.5%)를 보였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변화가 해당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2.3%로 조사됐고,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8.5%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영향력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도입 관련 우려지수 산업계의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83.5%)이 높았다.

기업의 대응 및 준비수준도 32.5%로 낮았는데, 기업의 대응불가 사유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및 인재부족(31.7%), 투자자금 부족(23.1%), 4차산

업혁명에 대한 이해부족(19.2%) 등 순이었다.

향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지원정책으로는 인재육성·교육 및 훈련제공(21.5%),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16.1%), 스마트팩토리 확산 추진 및 지원(13.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12.1%),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12.1%) 등을 꼽았다.

한편 응답기업의 51.3%가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화학제품업(66.7%)과 전기전자업(53.8%)의 진출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진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91.9%가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6.9%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생산, 기술, 판매 등의 업무제휴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종남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